

농림수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 강화

지난 11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겨울 철새의 도래 등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AI 상시방역 체계의 강화를 위해 전국 가금류 사육 농장에 대한 일제 차단방역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금번 방역실태 점검은 지난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에서 점검반을 편성, 관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시설 설치, 가동소독 실시 여부, 외부 차량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등 농장의 차단방역 실시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방역 추진상황, 농장 소독실태, 집중관리지역 및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차단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한식메뉴 외국어 표준표기안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국인이 한식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한식당에서 제공되고 있는 외국인 선호메뉴에 대한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표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한식메뉴 표기안은 문화부, 외교부, 한국관광공사, 국제교류재단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했으며, 국립국어원의 로마자 표기 자문과 음식조리·외국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 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외국어 표기안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과 외국인들을 위한 것으로 총 124가지 음식의 사진, 음식명칭, 주재료, 조리법, 곁들여 먹는 국이나 양념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동 표기안을 책자로 발간해 국내 한식당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한식당에 보급하고, 식품정보포털(www.foodin korea.co.kr)에 e-book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식 메뉴 외국어표기 품목 중 닭과 관련된 음식은 삼계탕, 닭백숙, 닭찜, 닭갈비 등 4가지 품목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삼계탕(samgyetang) / Ginseng Chicken Soup
- 닭백숙(dak-baeksuk) / Whole Chicken Soup
- 닭찜(dak-jjim) / Braised Chili Chicken
- 춘천닭갈비(Chuncheon-dak-galbi) / Spicy Grilled Chicken

기획재정부

한·EU FTA-한·인도 통상 피해 예상분야 지원키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제조 및 서비스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축산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16일 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 등과 함께 국내 250여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 한·유럽연합(EU) FTA,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산업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FTA 체결로 양돈·낙농·양계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은 우수종자를 공급해 돼지와 닭 등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발효유와 치즈 등 유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종돈장과 양계장의 질병 관리도 강화되며 우수 생산궤터를 종합 관리하는 연합궤터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센터를 'FTA 활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세제 지원과 사업 전환을 돕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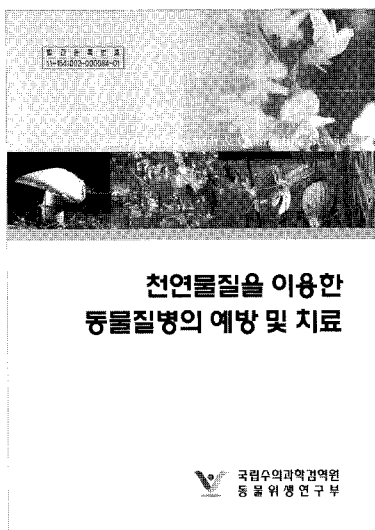
정부는 앞으로 10개 국책연구기관 공동으로 한·EU FTA가 우리나라 거시경제와 개별 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한·EU FTA를 정식 서명하는 내년 1/4분기 이후 발표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천연물질을 이용한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 책자 발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최근 '천연물질을 이용한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의 수의과대학,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축산위생기관과 축산분야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 천연물질에 대한 연구와 안전축산물 생산에 활용토록 했다.

본 책자는 동물질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그간 발표



된 동물, 식물, 미생물 유래의 다양한 유용 천연물질에 대하여 수의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논문과 특허에 근거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천연물질의 면역활

성실험법까지 일목요연하게 담아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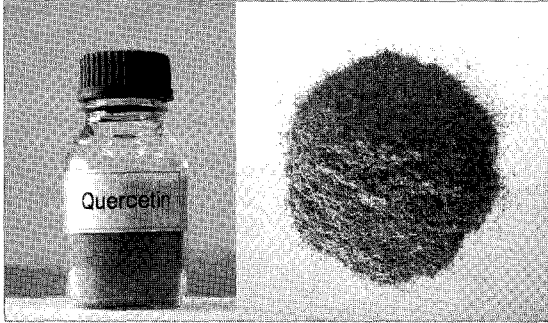
최근 슈퍼박테리아 등 항생제내성균의 출현과 다른 병원체로 내성 전달로 인한 동물질병에 대한 치료효율 감소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천연물질의 활용 가능성을 예견하고 유용한 천연물질 확보와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

버려지는 부산물 이용, 항생제대체 사료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가축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산량이나 품질 면에서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사료는 천연 향산화물질인 레스베라트롤과 케르세틴을 다량 함유한 사료로, 가축에게 급여했을 때 면역력을 향상시켜 생체 방어력



을 강화하여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증체량이나 품질 면에서 항생제보다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농산부산물이나 식품부산물을 활용하여 만들었는데 레스베라트롤 사료는 병잎이나 줄기 부산물을 이용했으며 포도껍질이나 포도씨와 같은 부산물에도 많이 들어 있어 사료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케르세틴 사료는 양파에서 추출한 물질로서 상품가치가 없거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버려지는 양파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원 재활용이라는 장점도 있다.

개발 사료를 가축에게 급여했을 때, 항생제를 급여한 것과 비교해 증체량과 사료효율이 개선되었으며 가축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품질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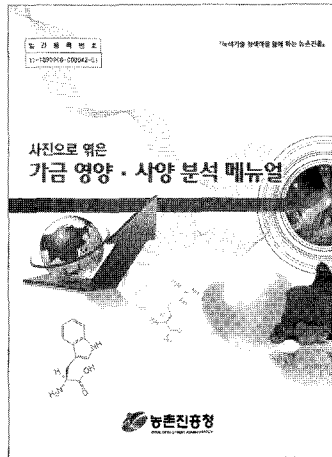
실제 농가 현장에서 급여한 결과, 기존 제품이나 항생제에 비해 증체량은 3.8~7.3% 증가했고, 닭고기 불량률은 1.5~2배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항생제 대체물이 있지만 효과나 경제성면에서 항생제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발한 사료는 경제성에 있어서도 항생제

사용과 비슷해 농가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팀은 현재 실용화를 위한 대량 생산체계를 완료했으며 향후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개발 사료가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으로 엮은 가금 영양·사양분석 메뉴얼' 발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에 근무하는 정선희씨가 지식 공무원으로 전문서적을 발간하고 국내 유수의 학회에서 논문도 독자적으로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1992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입사해 재직 중인 정선희씨는 현재 가금분야 연구의 근간이 되는 사료분석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과 열정에 의해 연구영역을 확대해 닭의 면역생리, 혈액성상 분야의 정밀분석도 가능하게 했다.

2008년 정선희씨는 가금과에 와 분석방법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후배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책만 보면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엮은 가금 영양·사양 분석 메뉴얼' 책자를 발간했다.

또한 같은 시료를 분석해도 저장기간이나 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점에 착안하여



분석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계란의 보관온도가 난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토종닭의 보관기간에 따른 혈액성상 변화' 등 한국동물자원과학회에 2편의 논문도 발표했다.

가정에서는 요즘 보기 드물게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며 1남 2녀의 자녀를 둔 평범한 아줌마이지만, 직장내에서는 툭툭 튀는 아이디어를 바로 성과의 결실로 맺는 정선희씨는 올해는 국내학회로 그쳤지만, 앞으로는 국제학회에서도 논문발표를 하겠다는 꿈을 밝혔다.

을별 필요로 하는 일손 지원 및 양계 기술 지원, 마을 주변 청소 등을 지원해 왔다.

우수상을 차지한 축산물이용과에서도 전북 남원시 운봉면 전촌마을과 양주시 맹골마을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 종합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발효생함과 치즈 제조기술 지원 등을 해왔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전 직원 워크숍 개최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은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확산을 위해 지난 11월 6일 축산과학원 강당에서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취지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이학동 농촌지원국장의 특강과 부서별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추진 사례 발표와 우수부서 시상 등이 이어졌다.

우수부서 시상에는 최우수상에 초지사료과, 우수상에 가금과와 축산물이용과, 장려상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과 영양생리팀이 각각 차지했다.

우수상을 차지한 가금과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과 연계하여 농업 현장에서 생활공감형 녹색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갈미마을과 전북 광주군 경천면 원용복 마을, 전북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상하보 마을, 전북 남원시 대강면 평촌리 평촌마을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AI 상시방역대책 추진 강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의심축 발견 시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시켜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시킬 수 있도록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자율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맞춤형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I 방역대책상황실은 지난 10월부터 2010년 4월 말까지 본부와 8개 도본부에 설치·운영하고



기관·단체·소식

있으며,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시료채취 등 시·예
 찰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방역본부가 11월 중순까지 추진한 시·예
 찰 임상에찰은 총 19,150호이며, 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382천점
 의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또한 시·예 의심축 신고 또는 모니터링 검사에서 양
 성 검출 시 해당농장에 대하여 확산방지와 조기근
 절을 위한 초동방역팀을 운영하고 있다.

방역본부는 보다 완벽한 초동방역체계를 유지하
 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초동방역팀 가상
 훈련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예 발생초기에 신속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
 춰놓고 있다.

가금류사육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는 '방역위
 생' 정보지와 시·예 예방홍보 리플릿 등 맞춤형 홍보
 물을 이용해 농가예방수칙, 의심축 발견 시 신고요
 령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 가족 HACCP 현장 방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축산물 HACCP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제5차 식육판
 매업 HACCP 현장 방문을 지난 11월 18일과 19일
 (1박 2일)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 및 소속기관(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종자
 원, 축산물HACCP기준원) 직원 가족 30여명이 참
 석했으며, 용인축산업협동조합육가공공장, 다영푸드
 (주), (주)풍림푸드, 건국유업협, 음성청결한우를 방문



하여 현장의 HACCP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저녁에 실시된 세미나에서는 농식품부 안전위생
 과 최대후 과장의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및 향후
 추진 방안 설명'과 기준원의 HACCP 진행사항,
 식육판매업 HACCP와 농장 HACCP 사례발표 등
 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HACCP 지정업체를 돌아보면서
 HACCP이라는 위생관리시스템을 직접 접하는 기
 회가 되었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HACCP 시스
 템에 의해 생산되는 축산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HACCP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반
 응이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2009년 현장연구조사 최종 발표회 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올해에도 축
 산물등급판정의 과학화를 견인하고 축산물에 대
 한 전문지식 습득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



문제해결 과제와 전문성 심화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 '2009년 현장연구조사'의 최종 발표회를 지난 11월 9일 가졌다.

금년도 현장연구조사 과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지역본부와 각 팀(실)으로부터 접수 받은 18개 과제 중에서 올해 1월 평가단 및 내부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 2, 돼지 5, 닭 2, 계란 1 등 총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본 연구과제는 2월부터 해당 지역본부에서 수행해 오고 있는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중간발표회를 거쳐 그 동안 수행해 온 과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는 자리로써 이재용 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초빙 외부심사위원 3명과 내부심사위원 3명이 전체 10개 과제의 발표과정과 제출원고를 대상으로 연구수행 적합성, 목표 접근도, 현장 활용도, 창의성, 참고문헌 활용의 항목을 심사했다.

이번 현장연구조사에는 현장 접근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제가 많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등급판정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를 위해 연구조사 한 결과들은 등급판정 업무 개선과 고급육 생산 컨설팅 등 농가지도 자료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2009년 현장연구조사 결과 보고서'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최종발표회는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신성장사업인 계란·닭고기 부문을 필두로 돼지와 소 부문 순으로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닭고기 부문에는 ▲"VQIS를 이용한 닭도체 기계등급판정 가능성 고찰"로 Visual Quality Inspection System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의 RGB Color 중 픽셀 B표기 값 등을 이용하여 닭

도체의 품질을 기계적으로 등급판정하는 방법을 찾는 연구과제이며, ▲"닭고기 신선육과 해동육의 기계적 판별법 연구"로 향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냉동닭고기의 수입 증가와 여름철 수요 급증 등에 의한 해동 닭고기의 신선육으로 둔갑 판매방지를 위한 기계적 판별법의 모색이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제20대 회장으로 김경주 현 회장 당선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향후 2년동안 11만3천여 영양사와 함께 우리나라 단체급식의 발전과 국민건강, 바른 식문화 확립을 위한 활동 등을 하게 된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육계 계열화사업 발전방향' 중간보고회 개최
육계 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해서 우선 계열화 사



가·관·단·체·소·식



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위원장 오세관)는 지난 11월 16일 농협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원장 노경상)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계열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열화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계열주체와 농가 간 분쟁 발생시 민사소송 이전에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확보된다는 분석이다.

축산경제연구원은 또 계약내용을 둘러싼 사육농가와 계열화업체 간의 갈등과 생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계육 가격 결정 체계, 그리고 병아리와 사료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 불만, 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미흡, 종계·부화장 등에 대한 기초통계의 부족, 계열업체와 농가 간 의사소통 부족 등 육계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을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축산법에 계열화 생산(유통협약 포함) 조문 신설 ▲계사 시설의 현대화 ▲육계 통계 정립 ▲도계육 유통 개선 ▲원부자재 구매 방식 개선 ▲비상장 계열업체의 농가에 대한 주식 배당(우리사주 형태) ▲전국 단위 육계협동조합 설립 ▲표준 계약서 제시 ▲중재위원회 설립 ▲농가협의회 활성화 방안 ▲계열화 평가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대한양계협회 이흥재 육계분과위원장은 축산법 중 계열화 사업 신설 조문안과 관련 계열화주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으며, '유통협약(명령)'이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계육협회 최정배 전무는 현실적으로 유통협약이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은 2~3년에 1회도 안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육계산업의 안정장치 개념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사연구의 방향을 국내의 내부적인 갈등구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방안과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가금학회

제26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박장희)는 지난 11월 13일 진주산업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서 회원 및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2010년 진주산업대학교(총장 김조원) 개교 100주년 기념과 연계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발표회는 신진가금학자 특강에 이어 구두발표,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신진가금학자 특강에는 ▲서울대학교 강석진 박사가 '평과 닭의 중간 키메라 생산'을, ▲(주)하림 권정택 박사(상무)가 '재조합 감보로와 마렉백신의 면역성에 대한 재조명'을, ▲건국대학교의 김용란 박사가 '가금사료 첨가제로서의 복분자, 박하 및 매리골드 추출물의 이용효과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후 구두발표는 최연호 교수의 '능력검정 자료를 이용한 국내 산란계의 생산성 변화 추이와 개량 진도 추정'외 10편이 발표되었으며 아울러 포스터 29편이 출품됐다.

정기총회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재홍 수석부회장이 2년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차기 수석부회장은 서울대학교 한재용 교수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축산물등급판정소

AI 세미나 개최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11월 17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AI는 더 이상 질병이 아니다'란 주제로 AI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연세대 성백린 교수는 'HPAI의 위협이 과연 진실인가, 과장된 것인가'란 주제를 발표하며 일부에서 신종플루 바이러스와 AI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보다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도 있다는 의견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바이러스와 HPAI 바이러스가 변이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발빠른 바이러스는 독하지 않고 독한 바이러스는 대유행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교수는 "WHO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AI의 치사율이 60%에 달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며 "실제 감염의 위험보다는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오수 질병센터장이 '2009년도 AI 상시 방역대책 및 검사결과'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전병률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정부의 AI 인체감염 예방대책'에 대해, 한국식품연구원 전향숙 박사는 'AI와 식품의 안정성'에 대해, 서울대 김재홍 교수는 'AI 발생현황과 인체감염 위험성 논란의 실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